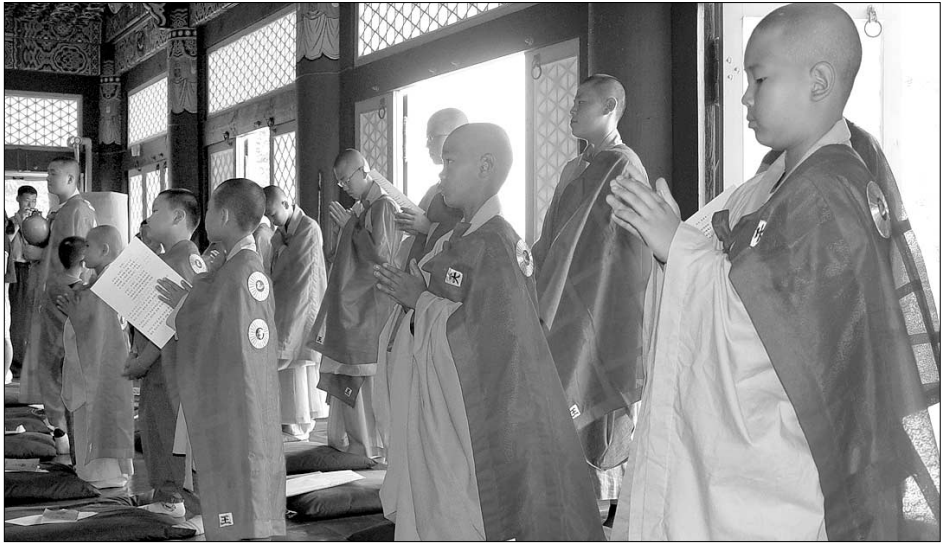


꾸러기들 의젓한 사미되다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서 구오사미계를 받고 있는 동자승들. 사진=이준엽 기자

“이 젊은 천지신명과 부모님께 출가허락을 청하는 삼배입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8월 3일, 동자승들이 대웅전에서 납죽 납죽 절하는 동안 법상에 오른 수계사 수진 스님(해동음맥 9대·용화사 아일다 율원장)은 “선근 복이 있어 절도 잘하네”라며 마치 자신이 사미승이 된 것마냥 신이 났다.

이날 담양 용화사에서 구오사미계(驅烏沙彌戒)를 받고 출가한 동자승들은 모두 16명. 이들은 멀리 경기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서 모인 어린동자들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사미수계산림에 참가 중이다.

“구오사미계란 절의 음식을 나르거나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보고 밟아드는 까마귀를 쫓던 어린 행자가 사미계를 받고 사미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수계사 수진 스님은 “태고종 종법상 18~45세가 되어야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어 사찰에서 보육하는 학생행자나 사미가 되고싶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이번 수계산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계산림의 생활은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새벽예불을 필두로 참선, 율력, 사시마지, 발우공양 등 승려로써 갖춰야 할 기본승의를 익히고 대중생활을 한다. 다만 방학 중인 학생이란 특성을 살려 ‘달마 호신술’ ‘레크리

에이션’ ‘캠핑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될 뿐 어느 수계산림에 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승려생활이다. 이번 사미수계산림은 가사, 장삼을 일상화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수계식을 거행했다.

“직접 절에서 생활해 보니 스님생활이 힘들어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면 재미있어요.” 제주에서 온 덕조 스님(속명 김성현, 동광초 4년)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찰은 없지만 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다”며 그 래도 사발한 머리가 어 색한지 머리를 쓰다듬는 다.

처음으로 구오사미계 수계산림을 마련한 수진 스님은 이번 수계산림을 위해 어려운 한자 의 식문을 한글로 바꾸어 특별교재를 만들었다. 수진 스님은 “일찍이 사미계를 받고 수행자 인연을 지어놓으면 어떤 어려운 일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탄생한 사미승들은 용화사 홈페이지(hwww.doyonghwasan.or.kr)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용화사는 여름(8월1일) 겨울(2005년 1월1일)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구오 사미수계산림을 개설하며, 이번에 제를 받은 사미승들도 수계산림때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18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다. 이준엽 기자

담양 용화사 구오사미계 첫 개설 방학마다 수행 프로그램 운영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창립23주년 기념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가 8월 4일 대구 인더블호텔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과 사원주지

연합회 명예회원 무공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서 지역불교 발전과 사원주지연합회의 번영을 기원했다. 또한 회원 사찰간의 화합과 발전 방향등이 논의됐다.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요즘 사회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

음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혜와 자비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 기념법회는 무공스님의 고취를 축하하는 자리를 겸해 이뤄졌으며, 사원주지연합회는 앞으로 해마다 양력 3월 3일에 창립 기념 행사를 봉행 할 예정이다. 배재선 기자

부산불교련 신임회장에 대성 스님



주지 대성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의장으로

부산불교련 집행회 8월 5일 연합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대성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수석 부회장 도원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부회장, 감사 등 기존 회장단이 유임됐다. 부산불교련연합회는 대성 스님 회장 취임 법회를 9월 초 열 예정이며 그전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섬마을 아이들 육지로 나간 이유

원도 신홍사, 여름학교 초등생 60명 도심문화 즐겨



원도 신홍사주지 법입는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낙도어린이초청장보고학교’를 운영했다.

지역주민을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여름학교에는 보길도, 청산도, 신지도, 생일도 등 완도군내 10여개 섬마을 초등학생 60여명이 참가했다.

장보고 학교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다도, 도자기만들기, 만화 그리기, 물로켓만들기, 쓰기 등 체험학

습과 사경, 연등의식, 수계식 등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기간 중 백양사 참배, 광주 놀이공원 나들이(사진), 영화관람을 통해 그동안 섬에서 누리지 못한 도회지 문화를 마음껏 즐기도록 했다. 이준엽 기자

강서예술촌 시민쉼터로 거듭나

서낙동강권 공원 조성 맞춰

부산지역 예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 강서예술촌(총장 강세우)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강서구청은 8월 4일, 강서예술촌 부지를 수만평 규모로 확충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농업체험 시설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최근 시가 추진 중인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 추진과 발맞춰 평강천에 접해 있는 강서예술촌을 수 만평 규모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강서예술촌은 강변축제에 맞춰 8월 30일까지 제 2전시실에서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전’을 개최한다. (051)972-3912 천미희 기자

원각사 7월 '원각' 창간 송광사 사보 편형 키워

송광사는 매월 발간하는 사보를 8월호부터 판형(4×6 배판)을 키우고 편집을 다양화 했다.

새롭게 선보인 월간 <송광사>는 ‘조계의 향기’ ‘성보순례’ ‘만다라’ 등의 코너를 신설해 송광사와 관련된 문화를 칼라로 소개하고 있다. ‘나의 송광사 시절’에는 송광사 원로스님들로부터 잊혀져가는 사찰생활을 듣고, ‘죽비소리’에서는 승속을 떠나 누구나 필자로 참여해 잘못된 세상사에 따끔한 불침(佛針)을 놓도록 했다. 이준엽 기자

이에 앞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도 7월 사보 <원각(圓覺)>을 창간했다. <원각>은 대중들을 포교하기 위한 문서포교지로 대호 3000부씩 계간으로 발행된다. 송광사 (061)755-0107, 원각사 (062)223-3168 이준엽 기자

법회경 사경 봉안 독승대법회

제주 조전 평화통일불사리탑(주지 설승)은 제59돌 광복절을 맞아 8월 14~16일 ‘법회경사경 봉안 독승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법회경 독승, 사경 봉안, 108회 탑돌이, 포살법회 등 3일동안 기도와 헌공, 예참의식으로 진행된다. (064)783-8801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부산 낙은사

아픈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도량



부산 낙은사 주지 자륜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있다

부산 낙은사(조실 혜지) 법당에서 수지침 봉사가 한창이다. 낙은사 주지 자륜 스님은 관절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뜸을 뜨며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 놓는다.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지만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자륜 스님의 법문에 마음까지 맑아져 치유되는 느낌이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수지침 봉사는 4년째를 맞는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봉사를 할 때, 법당에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한글예송집’을 손수 번역해 펴내고 한글로 된 경을 독송하며 불자들의 이해를 도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경부선 철로변에 위치한 낙은사는 작은 규모의 도량이지만 중생과 함께 숨쉬는 포교도량이자 대한불교해인종 총본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5년 전인 1999년 혜지 스님이 청년 불교, 대중불교, 한글불교를 제창하며 창종한 해인종의 창종이념을 펴기 위한 중심도량인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몇 마디만 나누보면 낙은사의 포교 원력과 그간의 활동들을 쉬이 짐작할 수

매주 금요일 지역민에 수지침 봉사 독경 한글화로 '쉬운불교' 전하기 앞장

도였지만 최근엔 인연 닿는 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네에 환자가 발생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낙은사 문을 두드릴 정도로 자륜 스님의 정성스런 수지침 봉사는 정평이 나갔다.

이처럼 언제나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해온 낙은사는 혜지 스님이 1979년 도심 포교를 발원하며 창건했다. 지역민들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이후 혜지 스님은 1986년부터 98년까지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부산불교 발전에 역량을 보태왔고 법무부 교정교화 부산교도소 법사단장을 지내며 사비를 털어 재소자 교화에도 힘써왔다. 특히 혜지 스님은 80년대 한글 독송을 시작해 뜻도 모르고 읽는 한문 불교를 한글불교로 바꾸는

“경로당 어르신들 보살펴 주고, 동네 행사 때마다 쌀, 율요수 등을 부족한 것 없이 보태주시 우리 동네 문해 해소사조.”

백관순(66) 보살의 낙은사 칭찬에 옆에 있던 황연희 보살도 거들고 나섰다.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고마운 스님덕분에 부처님도 자주 뵈고 너무 좋지요.”

지역민들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 잡은 낙은사는 대한불교해인종 총본산 건립 불사를 발원하고 있다. 200명이 넘는 제자를 키워낸 혜지 스님은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시설, 강원, 선원 등을 갖춘 여법한 본산 건립 불사를 발원하며 종도들의 뜻을 모아 나가고 있다. (051)322-5918 부산·천미희 기자

2004년도 청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도록,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쓰고 있다.
- 교 과 목**: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천추), 오십경,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들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 과 정**: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교육연수원장 명의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어션
- 모집방법**: 2급과정 30명(선착순)
●지원자격: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입학금 및 강의료: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원서접수: 2004년 8월 7일 ~ 8월 31일 까지
- 입학일시**: 2004년 9월 2일 13시
- 원서교부처**: 정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불교지도자와 제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개설 공고

- 대학개설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 교 과 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 주 2회 (화, 목) ● 시간: 15:00 ~ 17:00
▶ 기초
▶ 연구(현장실습)
지도자 과정반
● 주 1회 (금) ● 시간: 15:00 ~ 17:00
▶ 불교 교리 ▶ 현장 포교 ▶ 제공의식
▶ 실행상담 및 방법론 ▶ 서예, 활법, 참선
- 교육기간** (6개월)
● 원서접수: 2004년 8월 11일 ~ 9월 4일 ● 개강일시: 2004년 9월 7일 오후 3시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 교 통 편**: 차량운행
- 문 의**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031)864-0033 팩스: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중무원 부설 교양대학